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 9차 김치신학세미나 개막

한국 교회의 시작과 오늘의 과제 조망



▲ 16일의 김치신학세미나는 주한 외국인 선교사 및 목회자 등을 초청해 개최됐다. 사진은 예배광경.

제 9차 김치신학세미나가 16일(목) 오전 11시부터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인묘지 내 유니온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I부 예배와 특강에 이어 II부는 친교와 식사 시간으로 진행됐다.

I부 예배에 앞서 이종윤 목사는 환영사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전3:6)고 한 바울의 말처럼 선교사와 한국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다"며 선교동역자들의 노고에 감사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 선교사 및 목회자, 국내 학교(중·고·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사와 교수, 국내 신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같은 행사를 4월에 갖게 된 것은 선교

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땅에 첫발을 디딘 4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해마다 4월 중 이같은 행사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지난 주 가졌던 세미나에 이어 5월 28~29일에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교단(예장) 소속 선교사 25명을 초청하여 제주도 이기풍목사(한국교회 최초 선교사)기념관에서 열릴 5월의 김치세미나에서는 주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한국교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5월의 김치신학세미나는 예장통합측 선교위원회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

4월 학습·세례식

18일(수) I·II부 예배 시

4월 학습·세례식이 22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세례자 중 교육에 미참한 성도를 위해 20일(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며 문답은 21일(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실시한다.

학습·세례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만 문답과 학습·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의는 새가족부.

순례자 컬럼

교회의 중요성

인간 영혼은 교제를 요구한다. 상호관계가 끊어지고 고독해진 영혼은 아무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인간은 서로 떨어져서도 안되고 서로 무관심 할 수도 없는 사회적 존재며 서로 의지하고 함께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유기체적 피조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유기체는 인간의 몸이다. 그리고 유일무이한 참 몸은 교회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한 우

정과 친교를 나누며 위로와 평안과 믿음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안에서 모든 막힌 장벽이 무너지고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담이요 목표며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주의 몸되신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주님을 만나자.



365일을 부활의 주님과함께

부활절

남북교회 공동기도문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한반도 온 백성들이
부활의 아침에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빛으로 오셔서
잠들어 있는 인류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새생명인 주님
하지만 아직도 이 민족은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지 못한 채
서로의 아픔과 절망을 외면하며
갈등과 반목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불의를 고치사
새롭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제 한반도를 갈라놓은
대립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따뜻한 동포애가
반도 위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분단의 아픔을 넘어
협력과 공존의 시대를 열게 하시고
하나의 민족으로
마침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불어
한반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이 민족이 인류 평화의 사도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남북한 교회가 부활절 예배 시
공동 사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버림받은 자의 심판

5장 24 - 30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 여호와와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2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었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셨고 예배할 특권을 주셨으며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버렸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꺾이는 포도나무(욥 18:16)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도록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발하시는데 남은 그루터기까지도 불꽃이 삼켜버릴 것이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져 타버린다고 했습니다(24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뿌리째 썩게 되도록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 17:17).

2. 멸망의 원인과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진노는 국가나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언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웃시야왕 때에

일어난 지진을 말한 것입니다. 전쟁도 무섭고 질병도 무서운 것이지만 지진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사 13:13).

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흑암과 고난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무섭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질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었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니 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게 려져서 어두우리라”(사 5:24 - 30)

이중운 목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손이 기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으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것입니다.

3.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경제적 고통, 질병, 전쟁을 통해서 심판 또는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 아니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송두리째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앗시리아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실이 있습니다(왕하 19장, 사 36장). 그리고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실이 있습니다(32장, 왕하 19장). 그리고 그 이후로도 파사에게,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적군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쳐들어 와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 자기를 떠나는 백성을 치

는 심판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시는 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악한 자가 잘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김치신학세미나 환영사



“심고 물 준 수고가 오늘 한국교회로”

이 글은 16일에 개최된 김치세미나에서
이종운 목사가 한 환영사 전문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두 목사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한지도 어언 1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의료선교사로서 1884년 9월에 알렌(H. N. Allen)이, 1885년 5월 1일에 스크랜튼(W. B. Scranton)이, 그리고 그해 6월엔 헤론(J. W. Heron)이 한국 땅에 들어와 의료 및 교육사업을 개시함으로 어둡고 병들고 미신에 사로잡혀 신음하던 이 땅에 복음과 더불어 희망의 씨를 뿌리기를 시작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물론 민족적으로도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서울에 들어왔을 때 이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성서공회 소속 매서인 겸 전도사였던 백홍준, 이성하, 서상륜과 같은 이들의 전도로 의주,

소래, 서울에는 수백 명의 세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1886년 7월 11일 의사 헤론의 한국어 교사 노준경씨에게 세례를 주어 한국 안에서 최초의 신자가 되었는데 그의 개종 동기는 로스번역의 복음서를 애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외국의 선교사와 한국의 자생적 그리스도인이 함께 일해온 전통을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받은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그 모습도 대견스럽게 변모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교회로 출발했으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 흘려 희생한 선교사들의 수고와 한국교회의 열심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라”(고전3:6)한 바울의 말처럼 선교사와 한국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한국교회는 우리를 도와주신 선교사들에 대한 은공을 생각해 된 것은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 후 다시 우리들은 우리 민족교회를 위해 큰 수고를 하고 계신 이들의 노고를 생각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또한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몇 개월 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회장단 모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에 발을 디딘 4월에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선교동역자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년 동안 52개국의 해외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교회를 보여주고 성장비결을 함께 연구 전수하고 있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이 금년도 프로그램으로 한국 내 외국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터라 우리는 세 기관 즉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공동 주축하여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선교동역자들과 시간을 함께 갖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초청기관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으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그리고 대학과 신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년 이와 같은 모임이 계속되어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순례길에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니라”

### 부활절에 대한 나의 회고

의 추억은 항상 나의 친정어머니로 시작된다. 부활절 새벽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같이 하얀 명주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어린 나를 껴안고 한 손에 등(燈)을 들고 대구 동산 기독교병원 뒷산에 있던 선교사 관사를 향하여 가시며 찬송을 부르시던 어머니와 성도들, 그 새벽의 여명이 아직도 부활절 새벽마다 아련히 떠오른다.

어린 시절의 나는 비단 포복상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참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늦게 자식을 본 아버지께서는 나를 항상 “우리 자야, 우리 자야” 하시며 귀여워 하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지

##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얻은 부활신앙”

이영자(권사 · 8교구)

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 무덤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자야, 영자 왔어요’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자야 왔나” 하시면서 걸어 나오실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딸이 왔어도 그냥 누워만 계셨다. 산에서 내려오며 어깨 너머로 보고 또 보았지만 아무 변화 없는 무덤을 보며 얼마나 슬프고 쓸쓸했던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슬픔이 다시 내게 일어났다. 1994년 11월 10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계획 하에 남편 유 장로를 홀연히 불러 가셨다. “여보 나 이발하고 와요” 라는 그 한 마디가 내게 던진 마치

막 말이 되었고 당신이 손수가꾸신 정원을 지나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당시의 황당함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계속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웃을 것 같았다.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안구의 실핏줄이 끊어져서 눈에 검은 막 같은 것이 보이고, 귀의 청력이 떨어져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부정맥이 뛰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모를 일이었다. 천안에 유 장로를 묻고 하염없이 우는데, 마치 생시처럼 남편이 깨어난 두루마기를 입고 새 구두를 신고 나를 한 번 보고 웃더니 여지없이 뒤돌아서서 환한 길로 가는 영상이 눈 앞에 보였다. 그 때 나는 깨달았다. ‘아, 울지 말란 말이구나, 저 관 안에는 유장로가 없어. 그는 예수님 보좌 앞에 있어. 저 안에 있는 건 썩어 없어질 육신뿐이야 (4면에 계속)

(3면에서 계속) 그후 하루 종일 찬송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읍기나 다윗의 시편을 읽어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냥 글자만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하던 중,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는 말씀이 확 들어왔다.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을 읽으며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 그후 바울 서신을 읽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삼중천의 환상을 본 후 사십에서 하나 감하는 때를 맞는 등 그 많은 핍박을 이겨낸 것은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음이였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받았던 부활절, 그 날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말이 나의 가슴에 와서 박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아버지와 남편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볼 수 있구나, 지금은 보좌 앞에 나아가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별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넘쳐, 그 은혜가 고마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 유장로는 그가 꿈꾼 것처럼 하나님의 큰 손에 붙잡혀 따뜻하고 평안한 낙원에 이르렀고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위로가 생기면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다.

이젠 슬픔보다 감사가, 눈물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내가 그리는 주를 뵈 때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지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려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고등부= 오늘(19일) 집회시간에 부활절 성극 "부활절"을 공연한다. 고등부 성극팀의 이름은 "선·착·순". 선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나. 이번 성극은 이용자 권사가 지도했다. -최형렬-

◇ 중등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중등부 학생들은 손수만든 카드와 선물을 가지고 사랑부를 방문하기로 했다. 중등부와 사랑부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두호-

◇ 초등부= 25일(토) 청계산에서 교사기도회를 갖는다. 교사들은 이번 기도회가 영적 재무장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대영-

◇ 사랑부= 머리에서 물을 빼는 수술을 한 뒤 후유증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던 이우동, 이삭 어린이가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다. 이 어린이들은 부모님도 없이 주몽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제오복-



■ 성경공부 '사시기반'을 수강하며

그 말씀이 나의 힘!

허숙(집사 · 12교구)

매일이 즐겁고 복되다. 주일에 온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월요일이 되면 사시기반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또 다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거기다가 학창시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반장이라는 명예까지도 누리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원손잡이 에훗과 여선지자 드보라, 그녀를 돕는 바락과 머리카락의 화신 삼손 등에 관해 김정현 목사의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들으면 나는 BC 1400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치 이스라엘의 한 병사가 되어 그 선지자들과 함께 싸우는 십자가 병사가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가 산과 들로 가기보다 교회로 달려와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주시는가!

2천년 전 갈릴리에 오셨던 그 분, 동정과 연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죽음의 길을 가셨던 그 분.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도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열흘 동안이나 목숨이 끊어진 엄마의 팔을 베고 누웠었다는 한 아기에 대한 신문 기사가 눈시울을 뜨겁게 한 아침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의 공부가 필요한 이때가 아닌가 싶다.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에게 더 이상의 비참함은 없을 것이다.

■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④ 4월 2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이만열 교수)
- ⑤ 4월 27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IMF시대 목회자의 의식변화(고무송 목사)

◆오늘 점심식사는 장양일 집사 · 정정숙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선교사들을 위해
2.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강좌를 위해
3. 장애인들과 사랑부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br>II부 오전 11시<br>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br>II부 오후 7시               |
| 금요일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